호압사, 서울 서남권 전법도량 발돋움 박차

6월 15일, 금천 · 관악구 공무원불자회 연합법회 개최

첫 4개 불자회 참석 눈길
중창불사 일환 법회 개최
서남권 중심의 불사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호암산 호압사가 서남권 전법 거점도량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서울 호압사(주지 현민)는 6월 15일 금천구 · 관악구 공무원 불자회(이하 금관공불회)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금관공불회 법회는 구청 불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연합법회로 금천구청불자회(회장 김미화, 민원실장)와 관악구청불심회(회장 하용배, 의회사무국장), 금천경찰서 경불회(회장 송재찬), 관악경찰서 경불회(회장 박재순)가 함께 구성했다.

이들은 법회에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법문을 들었으며 법회 후 호압사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다과를 함께 하면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법회에는 주지 현민 스님이 법사로 나와 각종 민원 업무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불교 마음공부법을 전하고, 유구한 한국불교 역사를 이어가는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장에서 활발하게 임무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현민 스님은 "사람이 미운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커져서 생겨나는 것"이라며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만히 관조하여 내려놓고, 조금씩 마음을 내면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법문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교는 수천년간 이어오며 꿋꿋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루고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는 종교로 나서고 있다. 여기 모인 불자 여러분은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존재"라며 "민원업무를 맡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응원하는 스님들과 불자도반들이 있음을 잊지 말고 불자 한명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 주지 현민 스님과 최상원 신도회장을 비롯하여 참석한 공무원 불자들이 전법합시다를 외치고 있다.

법회 후 하용배 관악구청불심회장은 "불자공무원들은 항상 민원업무를 볼 때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을 염두하고 민원인의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며 응하고 있다.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에 임하겠다"며 "오늘 처음으로 금천구와 관악구 기관의 불자들이 함께 모여 법회를 본 만큼 앞으로 지역교류와 기관교류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과 자리에 참석한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도 불자회가 구성되어 36명의 불자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탐진치 삼독을 멸하는 길에 함께 도반으로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호압사 금관공불회 합동법회는 호압사의 중창불사 일환으로 외형적 불사와 함께 전법포교의 역량을 함께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호압사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설화가 깃든 천년고찰로 한양 천도에 따른 수도 안녕을 기리는 비보사찰로 창건됐다. 하지만 관악산 자락의 개발제한에 걸려 각종 신축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평가,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정도로 불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조계종 호법부장인 현민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며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불사 물꼬를 텄다.

호압사는 이에 힘입어 역사문화 콘텐츠와 더불어 강의와 참선 공간으로 사용하는 '심검당(尋劍堂) 확장 신축불사'를 30억원 규모로 추진, 극락전과 관음전, 일주문 부근 광장과 상설 문화공연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암학당, 인문학강좌 및 명상법회를 시작하고 지역민의 소나무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호압사 신도회가 진행해오던 '무료 국수공양'을 재개한데 이어 지역사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상원 호압사 신도회장(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전법합시다'라는 종단의 기치에 맞게 산중고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찰이 되기 위해 주지 현민 스님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함께 의지를 모으고 있다.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일배'로 세계엑스포 유치 기원

부산불교교육대학, 송상현광장 일원서 법회

6월 11일, 부산시청 광장까지
화엄승가회 · 총동문회 150명
부산시민 행복과 발전도 기원
박형준 시장도 감사인사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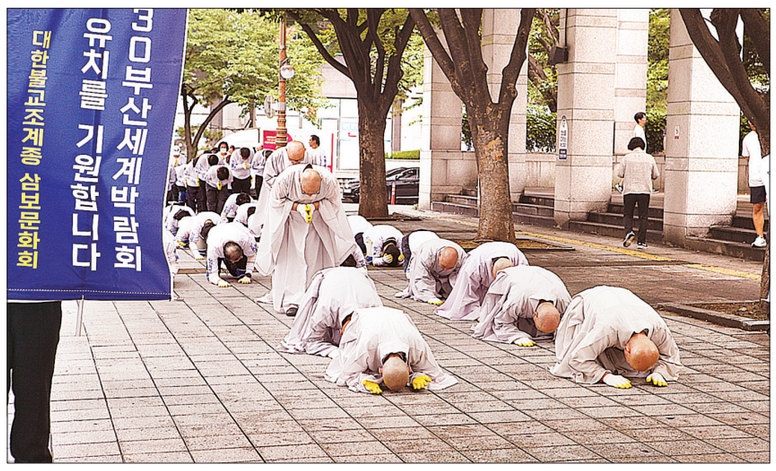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기원하는 삼보일배 정진이 이어졌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6월 11일 부산 송상현 광장 및 부산시청 일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삼보일배 대정진법회'를 개최했다.

부산엑스포는 인류의 문명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의 과제 및 미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장으로써 세계박람회 기구가 공인한 행사다. 인류의 산업, 과학기술 발전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과시하기 때문에 경제 · 문화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면 지역 균형발전과 뛰어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글로벌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부산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하고, 유치를 기원하는 부산시의 간절한 바람에 힘을 실어주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삼보일배는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출발해 부산시청 광장까지 이어졌으며, 참석한 150여 명의 대중은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하고 한 발씩 나아갔다. 대중은 부산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합장한 채 걸음을 옮겼으며, 석가모니불을 정근을 하며 바닥에 이마를 댔다. 스님들의 가사장삼은 흙탕물로 지저분해졌고 이마에는 낙엽과 먼지가 묻었으며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거리에서 삼보일배를 올리는 스님들.

부산시청 광장에 도착한 대중은 시청을 바라보며 축원을 올리면서 기도 원력을 모으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정진법회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화엄승가회 소속 스님들이 동참했으며, 송숙희 부산시여성특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서병수 국회의원 및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먼저 발원문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자비로운 세상, 풍요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살기 좋은 부산, 불국정토 부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발원한다"며 "앞으로 우리들은 불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무애행을 실천할 것이다"고 발원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시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삼보일배 정진법회를 봉행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지금 우리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며 "삼보일배 후에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기도를 이어가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송숙희 부산시여성특보가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현재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 민간, 기업뿐 아니라 특히 종교계에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며 전국 각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오늘 진행된 삼보일배 정진대법회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생명 가치 알린 청소년 활동 감사"

부산생명나눔, 백일장 시상식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6월 11일 부산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제15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부산생명나눔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백일장을 개최하고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공동주관했다.

시상식에서 운문 부문 이연우(금정중), 산문 부문 이가은(장산중)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 및 은상, 특별상 등 총 21명이 수상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생각하고 글로 담아내기 위한 시간이다"며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며 수상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과 함께한 진해 산사음악회

진해 대광사, 운성 스님 출판 기념



진해 대광사(주지 무경)가 6월 10일 대광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23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산사음악회는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의 책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와 음악회로 진행됐다. 운성 스님은 출가 후 60여 년 동안 시와 수필 등 문학으로 포교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선가의 이야기〉 〈님께서 오신날〉 〈누가 그리는 그림일까요〉 등을 출판했다.

운성 스님은 "글을 쓰는 것은 부처님의 불국정토를 표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자 승려의 역할로 생각했다"며 "부처님은 그리움의 대상이고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다. 부처님을 모시며 한 순간 느끼는 감정들을 담아 표현하며 대중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글이다. 오늘 북콘서트는 대중과의 만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반야 찬불단의 음성 공양 및 대중가수 정미애와 나건필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청소년은 댄스팀 일루션과 보컬팀 Take L이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호국영령 숭고한 희생 기억"

진여원, 부산 현충공원에서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봉행


진여원은 6월 9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5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9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5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행사 1부는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전수자인 동암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의 호국영령 위령재가 진행됐으며, 2부 본행사는 △개회 △헌시 △왕생극락기원 등 밝히기 △육법공양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왕생극락 발원문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및 장학금 전달 △인사말 △내빈 추모사 △추모법문 △폐회 및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추모법문을 맡은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5000년 동안 뿌리내린 우리 터전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호국정신으로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고 후손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고 애국정신을 알리는 일에 정진해 주길 바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좋은 세상으로 극락왕생하기를 축원드린다"고 말했다.

남보타월 원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초개와 같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호국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자 우리 지역 북구의 뜻있는 각계인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이 영원한 휴식과 안녕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고 대한민국 보훈가족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진여호국영령위령재 유공자 및 보훈의달 유공자 표창에서 진남수 진여호국영령위령재 추진위원회 봉행부위원장과 김성대 진여봉사단이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순애 진여봉사단 자원봉사팀장과 김종진 봉행부위원장이 부산지방보훈청장 표창을 받았다. 그 외 전재수 국회의원 표창 및 김도읍 국회의원 표창, 북구청 유공자표창 등을 수여하며 유공자 및 가족들을 격려했다. 보훈 유자녀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김나혜(혜화여고) 외 총 12명의 학생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3부 작은음악회에서는 7376부대 군악대의 군가, 신나라 색소폰의 연주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영제 스님, 동암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남보타월 진여원 원장, 정인자 진여봉사단 회장, 하승범 추진위원장,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 오태원 북구청장, 김도읍 · 전재수 국회의원,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 차돌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및 보훈가족과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기원

금정중 반야불자회 33명 참배



학교법인 금정학원 금정중학교(교장 박명규) 반야불자회가 6월 10일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원력에 동참했다. 반야불자회는 금정중 학부모 불자 모임이며 이날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을 위해 이석언 금정중 교법사를 비롯해 회원 33명이 참가했다.〈사진〉

마애불 앞에서 반야불자회는 석가모니불 정근 후 축원문을 낭독했으며 마애부처님이 바로세워지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천일기도에 동참하며 기도법사 단장 환풍 스님에게 입불에 대한 계획과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석언 교법사는 발원문을 통해 "천년 불국토의 땅 경주남산 마애불이 원형대로 훼손되지 않고 바로세워지기를 간절히 발원한다"며 "이번 불사를 통해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로 회향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혜경 반야불자회장은 "누워계신 부처님의 미소를 보고 환희심이 가득한 시간이었다"며 "마애부처님은 문화유적을 넘어 신앙의 상징이며 바로세우기는 성스러운 불사다. 꼭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